

中國과 韓國의 基本關係

盧 載 源*

지난 98年 11월에 濟州大學校 東아시아 研究所와 亞太政策研究院이 “最近의 南北韓關係와 4強의 韓半島政策”에 관한 심포지움을 성공리에 開催한데 이어 1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南國의 情趣가 무르익어가는 이곳 濟州道에서 「最近 東北亞의 新國際秩序와 韓中關係」에 관한 심포지움을 開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濟州大學校 東아시아研究所와 亞太政策研究院에 祝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過去 5千年 歷史를 통하여 韓半島와 가장 오랜동안 또한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져온 地域은 中國 大陸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거기다 中國은 50年代 南北韓 戰爭에 介入한 바 있고, 90年代의 韓中修交後의 經濟協力이刮目할 정도로 發展하였고 最近 4者 會談의 當事者로서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韓中關係를 넓고 깊이있게 檢討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中國과 韓國關係에 관하여 檢討함에 있어서 政治, 經濟, 安保등 여러主題에 따라 專門家 여러분들이 討論을 하게되는데 저는 韓中關係의 좀더 基本的인 問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專門的인 問題의 檢討에 앞서 基本的인 問題를 理解한다면 專門的인 問題의 把握을 더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中國民族의 形成過程)

中國民族과 韓民族의 起源과 形成過程에 관하여 簡單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用語의 定義를 하겠습니다. 中國民族과 韓民族은 다같이 ‘漢族’이라고 부르므로, 混亂을 피하기 위해 中國民族은 漢族, 그리고 韓民族은 韓民族으로 부르겠습니다.

(漢族은 複合民族)

漢族은 單一民族이 아니고 여러民族이 모여서 이루어진 複合民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單一人種이 아니고 漢族의 文化를 받아들인 種族은 모두 다 漢族으로 看做하고 있습니다. 그 結果 淸朝末에 260년이상 中國을 支配한 滿族, 즉 女眞族은 거의 다 漢族으로 同化하고 아직 滿族이라고 自稱하는 사람은 4萬名밖에 없는 狀態입니다. 이와같이 過去의 中國歷史에 登場한 여러 民族은 北方에서는 遊牧民인 蒙古族, 匈奴, 滿族(女眞族), 契丹族들이 漢族으로 同化되었고 南方에서는 群

* 前 駐中大使, 前 外務部次官, APPRI 首席理事

小民族들이 漢族에게 吸收되었습니다. 이러한 方式으로 漢族은 世界最大의 民族으로 成長하였습니다. 그래서 中國北部에는 健壯한 몸의 사람이 많은 反面 南方에는 이와 반대로 矮小한 사람이 많습니다. 漢族이 되는 條件은 漢族의 文化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中國말과 글을 常用하는것과 中國의 傳統的 宗教와 風俗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血統으로서 漢族이나 아니냐는 것은 問題가 안되는 것입니다. 넓은 中國에서는 北京語, 上海語, 四川語 그리고 廣東語와 같이 漢文을 基本으로 使用하지만 發音이 전혀 다르므로 外國語처럼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北京語는 四聲이라고 하여 네가지 '악센트'를 가진데 대해 廣東語는 九聲으로 아홉가지의 '악센트'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同一한 言語系統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言語를 가진 民族들이 漢文이라는 共通語를 採擇한 것으로 보입니다. 漢族의 衣裳으로 말한다면 中國사람이 日常으로 입고있는 便衣는 漢族의 傳統的인 옷이 아니고 清朝時代에 女眞族이 입은 옷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것입니다. 飲食도 地方에 따라 傳統的인 料理法은 있으나 材料는 現地の 것을 積極적으로 導入하여 中國料理가 發展하여 왔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김치와 각두기가 가장 맛이 있는 飲食店은 中國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同意 하실는지. 그리고 우리가 즐겨먹는 짜장면은 우리나라에 온 中國사람들이 開發한 것으로 中國에는 없는 飲食입니다. 이와같이 中國사람 또는 漢族의 固有文化를 母體로 하면서 여러가지 民族의 文化를 積極적으로 吸收하여 改善 發展한 것이며, 群小民族조차 吸收하여 漢族이 育成되어 온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異民族의 文物에 대한 適應性이 豊富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중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 華僑가 海外에서 現地에 빨리 適應하여 成功하는 秘訣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蒙古種과 漢族)

漢族의 立場에서 보면 有史以來 20世紀 까지의 긴 時代는 北方胡族과의 鬭爭의 歷史라고 할 수 있습니다. 北方胡族이라는 것은 蒙古種으로서 그 下流에 屬하는 匈奴, 契丹族, 女眞族, 蒙古族들의 侵略과 이들에 의해 때로는 數百年間의 中國의 征服과 統治와 擊退, 그리고 萬里長城의 構築등을 들 수 있습니다. 考古學者의 말에 의하면 數萬年前 Altai族이 Altai山脈地帶에서 移動을 開始 一部는 Turkey로 向했고, 蒙古種은 東進하여 各地에서 離脫하면서 蒙古族, 匈奴, 韓民族, 女眞族, 契丹族, Tungus族 靺鞨族 達靺族 등으로 分離 形成하였다는 것입니다. 蒙古種의 大移動은 12000년전 Bering海가 陸地였던 時代以前에 北南美大陸에까지 건너가 오늘날 '에스키모'와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된 것인데 이들이 蒙古種이란 證據인 蒙古斑點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駐카나다大使로 있을 때 北極地方을 旅行中에 確認하였습니다.

(韓民族과 漢族)

複合民族인 漢族에 비하여 韓半島에 사는 韓民族은 單一民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漢族과의 關係는 過去의 歷史를 통하여 直接間接적으로 複雜한 關聯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兩民族이 政治, 經濟, 文化的으로 關聯을 가져온 것은 勿論이지만 그밖에 漢族의 構成에 있었어도 韓民族은 直接 間接적으로 作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2,000年前까지 韓半島와 西海는 陸地로

서 山東半島와 連結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中原, 즉 山西省, 陝西省, 河南省에서 居住하고 있었던 漢族이 進出하지않기 때문에 韓民族이 이 地方에까지 分布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후 山東半島는 바다로 斷絶되어 이地方의 住民들이 漢族에 同化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韓民族을 포함한 東北方亞細亞系인 契丹族, 女眞族의 漢族과의 接觸地는 南滿가 되었으며 山海關에서 始作한 萬里長城으로 障壁을 構築하게 된 것입니다.

古代以後의 歷史에 의하면 中國의 政治的 混亂, 侵略 및 征服에 의한 人的交流가 많았습니다. 箕子朝鮮時代는 中國은 周에서 春秋時代이므로 中國의 混亂期에 箕子朝鮮에 流民에 의한 人的流入이 始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衛滿朝는 (漢帝國初) 史記에는 衛滿을 燕人(契丹族)으로 하고 있으나 制度採擇의 內容으로 보아 朝鮮族으로 보는 主張이 강합니다. 高句麗가 唐에 의해 亡할 때 38,200戶를 楊子江 流域과 淮河의 南方 및 僻地 未開墾地에 強制移住시켰는데 (資治通鑑-669年), 이것은 全人口 69萬 7000戶中의 5.5%로 所謂 高句麗의 Elite들 이었다고 합니다. 高句麗遺民중에 高仙芝將軍과 같은 사람이 歷史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中國에 移住한 百濟遺民과 唐時代에 山東省以南에서 楊子江以南의 沿岸에 널리 깔려 存在하였던 新羅坊은 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完全히 漢族으로 融合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漢族은 이웃의 여러民族을 吸收하고 融合하여 世界最大의 民族으로 成長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韓民族도 그一部가 吸收되었고, 韓民族의 同種同本이라고 할 수 있는 契丹族, 女眞族은 거의 完全히 融合되었으며 오히려 韓民族이 獨立을 維持할 수 있었던 것이 奇蹟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中國人의 特徵)

사람의 行動 및 思考의 習性은 環境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中國사람의 習性도 다분히 오랜 期間 살아온 自然的,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會的 環境의 影響을 받아 形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우리 韓民族과 여러면에서 사는 條件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行動 및 思考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舊時代의 傳統과 50年間 共產主義社會의 生活方式과 意識이 混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民族性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中國과 中國사람을 理解하려면 여러분들도 알고있으면 便利할 것입니다.

(國家觀)

中國은 20世紀初까지 1,000年間 漢族인 宋과 明의 440年을 除外하고는 異民族인 契丹族의 遼, 女眞族의 金, 蒙古族의 元, 또다시 女眞族의 淸이 560年間을 統治 하였습니다. 1,000年前의 먼 過去는 固捨하고 淸朝의 267年間의 中國統治는 오늘날의 中國사람에게 陰으로 陽으로 影響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簡單한 예로, 우리 韓民族은 36年間의 日本植民地統治로 깊은 傷處를 입고 50년이 지난 오늘도 그 惡夢에서 完全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異民族에 의한 統治가 數百年에 걸쳐 繼續되자 國家와 民族에 대한 意識이 別個의 것으로 發展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國家는 自己들을 保護하는 것이라기 보다 征服者로써 擄取와 收奪하

는 存在로 보아왔으며 國家를 徹底히 不信하여 왔습니다. 그 結果 그들의 安寧과 福祉를 위하여는 國家에 依存하지 않는 體質이 形成되었으며 個人主義가 優先하는 國民性이 되었습니다. 國家를 中心으로한 共同體에 대한 意識보다도 血緣과 地緣을 中心으로 利害關係를 保護하기 위한 私組織에 대한 忠誠心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國民性이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華僑의 境遇인데 國家의 保護없이 살아온 生存技術이 海外에서 逆境에도 不拘하고 現地の 條件에 빨리 適應하여 成功하는 秘訣이 있는 것 같습니다.

(事業觀)

中國사람은 장사를 잘한다고 定評이 나 있습니다. 猶太商人, 印度商人 그리고 中國商人은 世界에서 그 자리를 確固히 하고 있습니다. 中國商人은 唐나라때부터 千數百年間 Silk-road를 통해 東西交易을 해왔던 傳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理解를 돕기위해 비누장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中國商店과 韓國商店이 이웃에서 같은 비누를 팔고있다고 합시다. 原價가 100원이면 110이나 120원이 販賣價格이라는 것이 韓國商店의 常識입니다. 그러나 中國商店에서는 100원에 販賣하니까 競爭이 안됩니다. 中國商店이 利益을 올리는 秘訣은 비누의 販賣에서가 아니라 約束어음으로 仕入을 하고 現金販賣를 통해 얻은 現金을 金融事業에 活用하는 것 입니다. 中國商人은 事業을 商品의 販賣와 資金의 金融을 結合시켜 綜合的으로 推進하기 때문에 韓國商店의 個別的 商品의 採算을 생각하는 商法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伸縮性있는 商法이기 때문에 競爭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다른 特徵을 들면, 아무리 價格이 有利하다 해도 한사람에게 全量販賣 하지 않고 단골손님을 위해 商品을 남겨놓을 程度로 義理와 人間關係를 重視하는 態度를 지키는 것 입니다.

(價格觀)

中國에서는 最近까지 二重價格制를 維持하여온 것은 中國을 旅行한 일이 있는 분이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北京의 紫禁城의 入場料가 外國人에게 30元, 中國사람에게는 3元을 徵收하고 있었습니다. 航空機와 鐵道 料金도 外國人과 中國사람에게 差別適用하였습니다. 中國當局의 說明에 의하면 이것은 外國人에게 所謂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意圖가 아니고 價格의 安定을 위해 政府가 補助하고 있는데 外國人에게는 제값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市場에 가서 物件을 살 때 나 食堂에서는 外國人이라는 것을 알면 中國人보다도 몇배의 값을 要求하는 일이 普通인데 이때 中國側은 속인다는 感覺보다 當然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問題입니다. 옛날부터 中國에서는 大人(富者나 高位層人士)과 外國人은 庶民보다도 비싼 값을 주는 것을 當然視하고 그것이 이들의 Status Symbol 이었던 時代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感覺이 오늘날에도 살고 있어 中國人과 事業을 하거나 흥정할 때, 外國人에게 더 많은 價格上的 讓步를 要求하여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企業觀)

韓國사람에게 企業하는 目的을 물어보면 利潤追求라고 回答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은 회

답을 합니다. 그러나 中國사람에게 물어보면 雇傭과 雇傭人의 厚生이라고 回答합니다. 이것은 共產 中國의 事情이 反映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鄧小平의 改革과 開放政策이 本格化되는 1990年 以前에는 모든 企業은 國有化되었기 때문에 企業의 目的은 資本主義社會의 利潤追求보다 社會主義의 雇傭과 雇傭人의 厚生에 重點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市場經濟를 志向하는 여러政策을 推進하고 있으며 利潤을 追求하는 私企業과 外國企業도 全體의 50%를 占할정도로 經濟構造가 달라졌으나 失業者가 7000萬名 以上이며 每年 1700萬名씩 增加하는 狀態에서 生産性과 企業利潤을 無視하고 雇傭을 增加시키려는 霧圍氣가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企業이 現地에서 合作投資를 할 때 必要以上の 重役과 一般雇傭人을 採用하도록 要求를 받아 摩擦의 原因이 되고 있습니다. 韓中合作企業의 契約時에 반드시 分明하게 合意해야 할 事項입니다.

(男女平等)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퀴즈”식으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비내리는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아들이 車를 타고 가다가 추락과 正面衝突하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卽死하고 아들은 重傷을 입었습니다. 重傷을 입은 아들은 救急車로 病院應急室에 移送되고 手術을 받게되었습니다. 手術하기위해 들어온 外科醫師가 患者를 보자 “이 患者는 手術을 할 수 없소.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라고 하였습니다. 質問은 “이 外科醫師와 患者의 關係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가지 複雜한 關係를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 回答은 簡單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이質問에 빨리 回答하는 韓國사람은 아직도 10명중에 한사람 程度입니다. 英國사람도 같은 結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回答못한다고 부끄러워하실 必要는 없습니다. 問題의 核心은 우리 社會에는 男女差別意識이 아직強하고 男女平等意識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質問을 中國사람에게 던지면 당장에 “어머니”라는 回答이 돌아옵니다. 共產政權下의 中國에서는 빠스運轉士, 外科醫師, 그리고 各級公務員 등에 女性이 大量으로 進出하고있어 男女平等意識이 徹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맺는말)

이상과 같이 漢族과 韓民族이 서로 다른 民族이면서 政治, 經濟, 文化뿐만 아니라 人種的으로도 서로 깊은 交流關係에 있다는 것을 說明하였습니다. 中國사람의 習性は 그들이 살아온 自然的, 政治的, 經濟的 그리고 社會的 環境과 條件이 바로 이웃에 사는 우리 韓民族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行動 및 思考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舊時代의 傳統과 50年間 共產主義社會의 生活方式와 意識이 混合된 것도 있습니다. 中國과 中國사람을 理解하려면 이러한 점을 알고있으면 便利할 것입니다.

東北아시아의 新國際秩序가 美·日, 中·露, 美·中 關係로 複雜하게 얽혀가고 있는 現時點에 中國과 韓國과의 關係를 深度있게 照明함으로써 韓國의 統一과 經濟發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確信하며 이 심포지움을 主催하고 後援하는 모든 機關이 發展하고 成功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